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행정예고 의견에 대한

안 내 문

평소 우정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귀 단체(귀하)에서 제출한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행정예고(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41호)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의견 제출내용은 「우체국 폐국을 반대한다」로 이해됩니다.
3. 우체국은 우편시장이 SNS와 같은 대체통신 발달 등으로 우편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운영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우편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절감과 지속적인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우체국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귀 단체(귀하)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우정사업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 우체국 업무를 종료하고 인근우체국으로 통합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체국 업무가 종료되어도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우편취급국을 설치하여 기존과 동일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취급국 수탁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우체국 업무는 종료(통합) 예정입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전화: 064-800-5914, 팩스: 0505-005-2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17.

제주지방우정청장